

스마트공장 지원 전남은 되고 광주는 안되고

전남 도비 30% 지원하는데 광주는 명품강소기업에만 시비 10% 스마트공장 구축엔 생산성 23%·영업이익 23%·고용확대 6% ↑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지자체도 사업 필요성을 인식해 스마트공장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지원 규모가 제각각 이어서 중소기업들이 소재지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전남 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스마트공장은 단순 자동화 공장이 아닌 제품의 기획·설계·생산·유통·판매 등 전과

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작업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지능화 공장이다. ICT 설비와 자동화 솔루션을 이용해 시장과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적시에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제조 과정의 운영체계를 지능화한 공장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생산성 23% 증가, 원가 16% 절감, 불량률 46%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한 매출액 5.3% 증가, 영업이익 23% 상승, 고용 확대 6% 상승 효과

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 같은 효과를 근거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 올해 4000개 중소·중견기업에 보급하겠다는 목표다. 이 중 광주는 134개, 전남은 90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한다. 지역 중소·중견 기업들도 스마트공장 구축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자체도 이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간 지원 규모가 차이가 있어 지역기업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남의 경우 정부가 50%, 전남도가 30%를 지원하고, 기업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광주는 정부 예산 50% 지원한다. 시비 지원은 명품 강소기업에만 10%를 지원한다. 대부분 기업들은 자비 50%

를 부담해야 한다.

지원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다보니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의 사업 참여도가 확연히 다르다.

이날 현재 전남은 스마트공장 보급 90개 목표 중 81개 기업이 신청한데 반해 광주는 134개 목표 가운데 35개 중소기업만 신청 26.1%에 그치고 있다.

광주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역 제조업체가 몹시 힘들다. 스마트공장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여력이 되지 않는다.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전남은 도비가 지원되는데 광주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광주시장은 우리나라 최고 경제전문가로 꼽히는데 소외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미·중 무역협상 난기류 금융시장 불확실성 커져”

정부, 북 발사체는 제한적

정부가 미·중 무역협상에 나타난 갑작스러운 난기류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 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한 국내외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중국은 무역협상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장은 출렁거렸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날 5.58% 급락으로 장을 마무리했다. 2016년 2월 이후 3년 3개월여 만에 하루 낙폭으로는 가장 컸다.

미국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2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45%, 나스닥 지수는 -0.50%로 장을 각각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는 -1.01%, 밤유럽지수인 Stoxx 50지수는 -1.13%를 기록하는 등 주요 국가 시장도 내림세가 나타났다.

합동점검반 회의 참석자들은 미중 무역협상 전개 상황은 향후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함께 했다.

/*연합뉴스



기업과 함께하는 안전릴레이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행만)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7일 광주 첨단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인 지오씨(주)(대표 박인철)에서 첨단산업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기업인·근로자)과 함께하는 안전릴레이(BT+S 안전릴레이)'를 시작했다. <산단공 광주전남본부 제공>

“휘발유 어제 넣을 걸”...광주 하룻새 22원 경총

유류세 인하폭 축소 첫날

유류세 인하폭 축소 첫날인 7일 광주 휘발유 값이 1480원(1당)을 넘었다. 12주 연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보통 휘발유 가격은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되면서 이번 주 1500원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현재 광주·전남지역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1당 각각 1483원, 1478원을 기록했다.

광주 휘발유 값은 전날(1461원)에 비해 22원 넘게 올랐고 전남지역 가격 역시 20원 정도 인상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광주지역 휘발유 최고가는 구별로 동구

■ 광주 보통휘발유 가격 추이 (단위: 1당 원)



1599원, 서·남구 1539원, 북구 1555원, 광산구 1585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유가는 1502원으로 전날보다 25원 상승했다. 경유는 1당 광주 1353

원, 전남 1356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19원, 15원 올랐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는 1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 중순 들어서는 국내 기름 값이 더욱 들쭉날쭉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감 고조 속에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5%(0.31달러) 오른 62.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76.99 (-19.33)
- ↓ 금리(국고채 3년) 1.72 (-0.02)
- ↓ 코스닥 753.45 (-8.37)
- ↓ 환율(USD) 1166.50 (-3.50)

광주, 전남·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지난해보다 89% 증가 62만6000가구

5월중 신청, 9월께 지급

광주와 전남·북지역의 근로장려금 지원 신청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89% 급증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은 62만6000가구로 전년에 비해 29만4000가구(88.6%) 증가했다. 자녀장려금 대상은 12만7000가구로 이를 합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신청대상은 총 65만7000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40만8000가구보다 24만9000가구(61%) 늘어난 수치로 광주국세청은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30세 미만 가구의 비중은 24%로 전년 2%에 비해 22%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일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은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홑벌이는 2100만원

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었다.

또 재산요건을 기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 것도 대상 급증에 한몫을 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난해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으로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이 주어진다.

광주국세청은 5월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홈택스(hometax.go.kr)나 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광주국세청은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고 농어촌 거주민의 편의를 위해 381개 읍·면사무소에 'ARS 신청도우미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5월 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1일~12월2일이며 심사 후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문의 062-236-7199.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근로시간 감소... 지난해 노동생산성 3.6% 상승

한국생산성본부 '2018년 동향'

지난해 우리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전년보다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부가가치 향상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근로시간 감소 등 노동투입을 줄인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생산성본부가 7일 발표한 '2018년 노동생산성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 노동생산성지수(부가가치 기준)는 전년 대비 3.6% 오른 108.3을 기록했다.

노동생산성지수는 부가가치나 산업생산 등 산출량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비율로,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2015년 100을 기준으로 부가가치가 크고 노동투입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지난해 노동생산성지수 상승률은 전년(3.3%)보다 소폭 확대됐다.

부가가치 증가율은 민간소비가 유지되고 정부 소비와 수출이 늘어난 반면 건설·설비 투자는 줄어들면서 전년 3.3%에서 지난해 2.5%로 소폭 둔화했다.

노동투입 증가율은 근로자 수 증가율

이 둔화하고 근로시간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전년 0.0%에서 지난해에는 -1.1%를 기록했다. 노동투입량은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을 곱한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전년보다 5.4% 오른 115.4로 집계됐다. 상승률은 전년 6.1%에서 둔화했다.

부가가치 증가율이 4.4%에서 3.6%로 둔화했지만 노동투입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의 근로자 수 증가율은 2017년 -0.1%에서 -0.5%, 근로시간 증가율은 -1.8에서 -1.2%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지수는 전년보다 3.5% 상승한 106.0을 기록했다. 상승률은 전년 1.7%에서 확대됐다.

부가가치는 2%대 증가율을 유지했고 노동투입은 전년 0.4%에서 올해 -0.8%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 증가율은 1.8%에서 1.3%로 줄었고, 근로시간 증가율은 -1.4%에서 -2.1%로 감소세가 확대됐다.

/*연합뉴스

(주)금호주택

GUMHO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문의 (062)382-8879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원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종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